

서울에어쇼 개최의의와 전망

서울에어쇼공동운영본부장 차 정 열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주국방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 키로 하고 장기발전비전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에는 제1회 서울에어쇼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제2회 서울에어쇼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세계의 에어쇼와 비교한 서울에어쇼의 현 위치와 서울에어쇼98 개최의의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에어쇼98 개요

서울에어쇼를 개최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홍보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항공우주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가 방위력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어쇼98 행사목표를 * 항공우주산업 발전기반 마련 * 방위력 개선사업 촉진 *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기회 마련 * 군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 4가지로 정하고 분야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금년에 계획된 "제2회 서울에어쇼(Seoul Air Show 98)"는 예년과 동일한 장소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처음 4일간은 항공우주 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데일로 운영하고 나머지 3일간은 일반인이 입장

할 수 있는 퍼브릭데일로 정했다.

서울에어쇼98은 크게 실내 외 전시회, 시범비행, 곡예비행, 항공우주심포지엄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전시회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서울에어쇼98 행사내용>

■ 실내전시

- 항공기, 우주기기, 무기체계 실물 및 모형
- 항공기, 우주기기, 무기체계 관련 컴퓨터, 시뮬레이터
- 항공우주 관련 출판물
- 공항 관련 장비

■ 야외전시

- 최신 전투기 • 대형 여객기
- 비즈니스기 • 수송기
- 특수목적항공기
- 탱크, 트럭 등 지해상 군수장비

■ 시범비행

- 최신 전투기 시범비행
- 수송기, 비즈니스제트 등 민간항공기 시범비행

■ 곡예비행

- 공군 블랙이글스팀 곡예비행
- 민간 초청 비행단 곡예비행

■ 심포지엄

- 국방정책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학술

발표

서울에어쇼98 규모

구분	내용	규모
행사장규모	실내전시	12,500㎡
	실외전시	86,400㎡
	소계	99,200㎡
참가업체	국내기업	20개사
	외국기업	135개사
	소계	155개사
관람객	전문가	15,000명
	일반인	235,000명
	소계	250,000명

외국의 에어쇼 개최현황

에어쇼는 대부분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세계적으로 그 수는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이 레저스포츠 또는 초경량 항공기 등의 야외 전시회이고 대형 실내전시와 첨단 항공기의 시범비행을 포함한 메이저 에어쇼는 20여 개 정도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쇼는 프랑스의 파리에어쇼이다. 파리에어쇼는 홀수년도에 르부르제 공항에서 개최되는데 1913년 이래 42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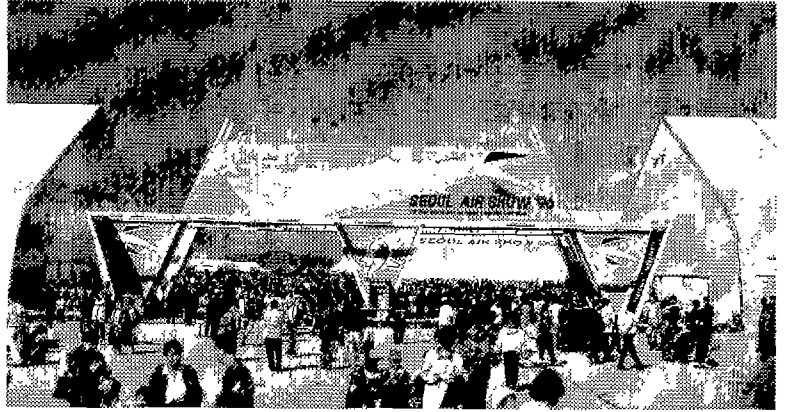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97년에는 42개국에서 1750개 업체가 전시에 참가했다. 일요일에 퍼브릭데이로 시작해서 월~금요일에 비즈니스데이를 운영하고 주말에 다시 퍼브릭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가 2번째 규모이다. 영국 Hampshire에서 짝수년 9월에 열리는 데 비즈니스데이가 5일이고 퍼브릭데이는 2일이다. 서울에어쇼보다 1개월 전에 열려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2000년부터는 6월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권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에어쇼가 9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중심권에 있고 유럽과 호주와 연계되는 지리적인 장점으로 대형 에어쇼로 성공한 경우다. 1998년 9회 대회에는 950개 업체가 전시에 참가하였고 입장객중 전문가가 27,000명으로 전체 입장객의 35%를 차지하는 전문에어쇼로 성장했다.

미국은 항공우주산업 규모에 비해 대형 에어쇼가 없는 편이다. 각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헬리엑스포가 가장 큰 규모인데 민수용 헬리콥터를 전문으로 전시하는 행사로서 97년에 약 40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그 외에 약15개의 항공우주 및 군수산업 전시회가 있는데 서울에어쇼와 같이 짝수 년에 개최되는



성황을 이루었던 서울에어쇼 96

것으로는 칠레,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에서 6개가 개최되고 홀수 년에는 일본, 아랍에미리트, 호주, 캐나다, 모스크바, 태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서 8개가 개최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서울에어쇼를 포함하여 홀수 년에 10개, 짝수 년에 9개 총 19개의 전시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에서 3개, 유럽지역에서 4개, 아시아지역(중동, 호주 포함)에서 12개로 아시아지역 전시회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수년간의 경쟁을 통해 5개 정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권에서 어떤 에어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싱가포르에어쇼는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호주, 한국, 중

국, 인도네시아 등이 비교적 우위에 있으나 일본, 태국, 인도 등도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4~6년간 열릴 2~3차례 전시회의 성공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어쇼는 아시아권에서 5위 정도로 판단되나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항공운송 및 국방수요 등 직접적인 장점 외에도 맑은 가을의 기후조건이나 국민의 호응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서울에어쇼98 개최 의의

서울에어쇼는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관광수지개선 및 국제회의산업발전 등 부수적인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항공우주업계에서는 21세기 세계10대 항공우주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부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울에어쇼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정부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의지를 홍보함으로써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공동개발사업이나 수주계약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분야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군이 보유한 장비를 일반에 공개하고 외국의 첨단 장비와 비교 검토케 함으로서 국민이 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유장비의 현대화를 시킬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고교생에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지향적 인격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수적으로 외국 전시 참가자와 바이어 및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도산 위기에 있는 전시회 전문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행사를 연기하기를 권면

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자국을 항공우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에어쇼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인 에어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서울에어쇼96을 완벽하게 치렀으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시점에서 행사를 연기하면 그 동안의 홍보 및 전시유치활동이 사장되고 재 조정된 시기에 맞추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를 다소 축소해서라도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어쇼98 준비현황 및 전망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서울에어쇼98 준비가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2년 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고, 외국의 전시참가 신청이 예상대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번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행사 기본계획을 명예대회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발송, 외국 에어쇼 출장홍보 등 외국 업체의 전시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대

비 50%정도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세부 프로그램과 전시장 설계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전시장 시설, 비행, 공식행사 등 행사운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예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즈니스 상담여건 조성을 위해 비즈니스데이에는 전문가만 입장시키고 구매력 있는 VIP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행사를 최소화하여 차분하고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내실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초기 단계에 예산이 부족하여 해외홍보에 한계가 있고, 싱가포르 등 세계적 에어쇼에 비해 중소 부품업체의 참가가 저조한 점, 군 공항 사용으로 인한 출입제한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으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전시회만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서울에어쇼는 향후 아시아 권에서 2번째 세계 5~6위의 국제 에어쇼로 성장하여 국가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